Human Computer Interaction

User Analysis on Photo Organizer

2015190001

황지수

1.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의 목적**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은 사진 정리용 프로그램도 따로 있지만, 스마트폰의 갤러리, 사진 앱이나 사진을 보관하는 클라우드형 드라이브에도 주요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올린 사진들을 잘 정리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잘’이라는 것은 심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편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로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 사용자가 자신들의 사진을 원하는 대로 추가했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보고 찾을 수 있게 만드느냐가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이다.

1. **Interviewee에 대하여**

Target Group은 20대로, A(25세, 남), B(23세, 여), C(25세, 여), 총 3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숙련 정도는 중급자(Intermediate)에 해당한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며, 평소에 일상이나 여행사진들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사용자들이다. 세 사람 모두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구글 것(구글 드라이브, 구글포토)을 사용하고 있었고, 모바일과 웹 모두 사용했지만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릭과 화면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3가지 HCI 원칙들 중에서 유용성이었다. 방대한 사진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모두 머리에 떠오른 어떤 사진을 찾으려는 목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찾은 사진은 공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진 감상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부가적인 행동이었다.

1. **기능 요구사항**
2. 자동 업로드 기능

주로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기 때문에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앨범에 있는 것이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과 동기화되기를 요구했다. 인터뷰 결과, 현재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자동 업로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을 경우 불편함을 주는 것이 되었다. 자신이 매일 따로 올려 놓고, 이후에 찾는 방식은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한다. 만약, 업로드는 자동적으로 사용자가 모르게 알아서 이루어진다면, 사진을 찾고 싶을 때 사용자는 단지 찾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단계가 줄어들게 된다. 유용성과 사용성을 모두 증진시키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두가지가 모두 발전할 경우 감성적으로도 ‘좋은’ 느낌을 사용자에게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1. 보다 더 구체적인 사진 분류

기존의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날짜나 미디어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만약 사진 분류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할 수 있다면, 찾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A는 이전에 아버지와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단 둘이 찍은 사진만 따로 묶여 있는 것을 구글포토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그 날에 음식이나 숙소사진 등 다른 사진들을 많이 찍었지만 아버지와 여행하면서 밖에서 찍은 사진들만 분류되어서 자신에게 제시되어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양이 사진을 많이 저장하는데, 고양이만 모아서 분류해 놓아서 고양이 사진만 보고 싶을 때 훨씬 편했다고 말했다. B는 구글 드라이브에는 없지만 아이폰 사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 얼굴이나 키워드로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좋은 변화인 것 같다고 밝혔다. C는 분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날짜, 사람, 사건 이름을 라벨링(labeling)하여 폴더를 만들어서 검색을 한다고 하였고, 만약 자동적으로 된다면 매우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추억 제시, 추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에서 1년 전 오늘, 한달 전 오늘과 같이 추억을 제안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와 B는 긍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에는 방대한 양의 사진들을 보관하면서 최근의 사진을 주로 찾게 되고, 과거의 사진들은 잘 찾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류한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재구성하여 추억을 제안해주면서 추억에 젖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이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경험도 제시할 수 있으며 감성적 측면의 새로운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C는 추억 제시가 사용성을 해친다고 말하였고, 추억 제안 섹션이 화면에 등장시킬지 말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1. 추가적인 요구사항 존재
2. 하드웨어 측면

이는 위에 언급된 사실과 같이,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용량이 커야 함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었다. 사진을 잘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두 처음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기준이 용량이라고 밝혔다. 초보 사용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자동 기능도 중요하지만 용량도 신경써야 함을 시사한다.

1. 비용 측면

공통적으로 비용도 많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 유료일 경우에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능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가격 대비 제공하는 용량이 얼마인지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용량과 비용 모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 **인지적/신체공학적 요구사항**
2. 사진 선택

사진들을 복사, 이동, 삭제 등을 사용자가 함에 있어서, drag나 윈도우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축키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C는 과거에 심한 경우에는 한 개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진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으로만 가능해서 동그라미 밖의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선택한 것들이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리 할 경우도 많고, 그 사진의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0개만 넘어가도 50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1초에 클릭을 한 번 한다고 해도 약 1분의 시간동안 사진 선택만 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불편함과 짜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나 ctrl/shift 키의 사용이 가능해 진다면 클릭의 수가 과거의 방법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1. 전체 사진 display

C는 첫 화면에 한 눈에 사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게 보는 것이 좋은 지 작게 여러 사진들을 나열하는 것이 좋은 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화면 당 보여지는 사진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래야 사용자가 사진을 찾고자 할 때 사용자에게 맞는 적절한 정보의 양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명 모두 사진은 사진 명보다는 사진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좋아함을 알 수 있었다. 폴더에서 파일을 찾을 때와 달리, 사진은 사진 이름보다는 사진을 직접 보고 찾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차라리 함께 제시되고 사진이 보이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1. 주요 테마 색상

A는 구글 포토나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은 하얀 바탕색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은 화면에 등장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진이 많이 보여 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은 미리보기 된 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색과 같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색을 배경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1. **시나리오**
2. 사진 검색(키워드로)

텔레비전, 화면, 스크린샷, 모니터이(가) 표시된 사진

매우 높은 신뢰도로 생성된 설명

1. 추억 제시(알람으로)

텔레비전, 사진, 화면, 실내이(가) 표시된 사진

매우 높은 신뢰도로 생성된 설명

1. **인터랙션 모델(GOMS model을 바탕으로)**
2. 최근 사진 검색
3. 모바일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리킴(P)
4. 어플리케이션을 터치하기(B)
5. 어플리케이션 로딩 기다리기(W)
6. 날짜 별로 혹은 가장 최근 업로드된 사진 탭 중 선택(M)
7. 선택한 탭을 가리킴(P)
8. 탭을 터치하기(B)
9. 스크롤 하기(S) <-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찾을 때까지 계속 스크롤
10. 추억 보기
11. 모바일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리킴(P)
12. 어플리케이션을 터치하기(B)
13. 어플리케이션 로딩 기다리기(W)
14. 추억 탭 가리킴(P)
15. 보고 싶은 추억 고르기(M)
16. 추억 가르키기(P)
17. 보고 싶은 추억 터치하기(B)